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 국채보상운동기록물 조선통신사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왼쪽부터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 국채보상운동기록물, 조선통신사기록물.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日 정부 저지로 보류

우리나라와 중국, 타이완 등 9개국어 공동으로 신청한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보류됐다. 반면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 ‘국채보상운동기록물’, ‘조선통신사기록물’ 등 3건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31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유네스코가 공개한 등재 최종 목록에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은 포함되지 않았다.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은 피해자의 증언 기록을 비롯해 위안부 운영 사실을 증명할 사료와 위안부 피해자 조사 자료 등 2744건으로 구성됐다. 인권 유린을 당한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진상 규명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유일하고 대체 불가능한 자료’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분담금을 무기로 유네스코를 압박한 일본 정부의 저지를 이겨내지 못했다. 반면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 등 3건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확정돼 우

리나라는 기존의 세계기록유산 13건과 함께 총 16건의 세계기록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이번에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확정된 어보는 금·은·옥 재질의 의례용 도장으로 왕과 왕후의 덕을 기리는 칭호를 올릴 때나 왕비·세자·세자빈을 책봉할 때 만들었다. 어책은 세자·세자빈 책봉과 비·빈의 직위 하사 시에 대나무나 옥에 새긴 교서를 뜻한다. 조선조 건축 초부터 근대까지 57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제작·보존되었고 의례용으로 제작됐지만 내용·작자·문장의 형식·글씨체 등에서 시대 변천상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 또한 ‘국채보상운동기록물’은 국가가 진 빚을 갚기 위해 한국에서 1907년부터 1910년까지 일어난 국채보상운동의 전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다. 총 2470건의 수기 기록물과 당시 모금 과정 등을 전한 언론

- **조선왕실의 어보와 어책**
조선왕실의 의례용 도장인 어보(御寶) 331점과 세자 책봉·직위 하사 시에 대나무나 옥에 교서를 새긴 어책(御冊) 338점.
-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1907년부터 1910년까지 국채보상운동의 과정을 적은 수기(手記), 언론 보도 등 2472건의 기록.
- **조선통신사 기록물**
조선이 1607년부터 1811년까지 12회에 걸쳐 일본에 보낸 조선통신사 관련 기록.

보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기록물은 19세기 말 제국주의 엄청난 규모의 빛을 지워 지배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전 국민의 약 25%가 외채를 갚은 국민적 기부운동이었다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았다. ‘조선통신사기록물’은 조선통신사와 관련된 일체의 기록을 아우르는 것으로 한국과 일본이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해 성공한 첫 사례다. 조선통신사는 조선이 임진왜란이 끝난



뒤인 1607년부터 1811년까지 일본에 12차례 파견한 외교사절로, 이들은 문화교류를 매개로 평화관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1997년 훈민정음 해례본과 조선왕조실록, 2001년에 승정원 일기와 지지삼세오절, 2007년에는 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경판과 조선왕조 의궤 등을 유산 목록에 추가했다. 2011년에는 일성록과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 2013년에는 난중일기와 새마을운동 기록물, 2015년에는 유교책판과 이산가족찾기 생방송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에 등재시켰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한·중, 사드 갈등 등 통합 모든 교류 정상화 합의

한국과 중국이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을 통합하고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외교부는 지난 31일 오전 홈페이지를 통해 양국 간 진행됐던 사드 문제와 관련한 합의 결과문을 담은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합의 결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중국 측과 동시에 발표했다. 이 자료에서는 “최근 한중 양국은 남관표 대한민국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쿵쉬안유(孔鉉佑)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장조리 간 협의를 비롯해 한반도 문제 등 관련해 외교당국 간 소통을 진행했다”면서 관련 합의 내용을 전했다. 자료에 따르면 양국은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가고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사드 문제와 관련, 우리 정부는 중국 측의 사드 문제 관련 입장과 우려를 인식하고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는 그 본래 배치 목적에 따라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서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반면, 중국 측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반대하

다고 재진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합의 결과와 관련, “중국에 말할 것과 우리가 말할 것을 각각 밝히고, 현실에 있어서는 한중관계 개선을 위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는 선에서 협의의 문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성주 사드포대는 기정사실로 양해된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중국의 입장은 사드 문제가 해결됐다, 인정한다는 차원이 아니다”며 “사드와 관련해서 양국 간 가진 입장을 있는 대로 표명하고 그 순간 봉인했다고 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중 양국은 이 같은 관계개선 합의에 따라 오는 10~11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 개최한다고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이 발표했다. 남 차장은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양국 정상회담의 개최 합의는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합의 결과에 언급된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한 합의 이행의 첫 단계 조치”라고 설명했다. /임동욱기자 tuim@연합뉴스

안봉근·이재만 체포...국정원서 수뢰 혐의

특수활동비 靑 상남 의혹 남재준·이병기 집 등 압수수색

검찰이 지난 31일 박근혜 정부 시절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을 국가정보원과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로 등으로 전격 체포했다. 검찰은 또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전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자택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의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 전 비서관을 비롯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조운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자택,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사안은 기본적으로 뇌물 혐의 수사”라며 “청와대 관계자들이 국정원 관계자들로부터 돈을 상납받은 혐의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화이트리스트 의혹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 특별비가 안 전 비서관 등 박 정부 청와대 관계자에게로 흘러들어간 단서를 포착했다. 당시

공무원이었던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 등 박 전 대통령 측근이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이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해 돈을 받으면 뇌물죄가 성립하는 구성요건이 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안 전 비서관 등이 국정원으로 부터 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연간 십수억원을 정기적으로 챙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교육부, 국립대병원 증원 기준 오락가락...지역 편중

부산대병원 ‘간호등급유지’ 사유 받아들여 140명 전원 증원

‘간호등급 3등급’ 열악한 전남대병원 44명 요청에 26명 반영

교육부가 전남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의 정원증원을 심사하면서 특정 지역에 대한 집중 증원지원과 지원배제를 일삼아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3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15~2017년 예산 비수반 공공기관 인력증원심사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015년 부산대병원 이 간호등급유지(1등급)를 증원요청 사유로 들며 간호사 정원 140명 증원을 요청하자, 100%(140명 전원) 반영했다. 부산대병원 간호사 증원은 기재부 협의 과정에서 5명이 줄어든 135명으로 확정됐다.

반면 같은 해 전북대병원 이 신생아치료를 병상을 5개 늘리고 간호등급을 상향하는데 간호사 9명의 증원을 요청하자 단 3명만 반영했다. 교육부는 또한 지난 2016년 전남대병원이 환자수 증가를 증원요청 사유로 들며 간호사 정원 44명을 늘리겠다고 요청하자 절반을 겨우 웃도는 26명만 반영하는 선에 그쳤다. 이와 관련 장정숙 의원은 “국립대병원 중에서 전남대병원은 간호등급 3등급으로 가장 열악한 상황임에도 제때 증원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2016년은 환자수 증가로 전남대병원이 증원을 요청했지만 절반 수준만 반영되고, 충북대병원의 경우 21

명 요청했는데, 요청한 증원이 모두 수용됐다. 대체 원칙이 뭐냐”고 따져물었다. 장 의원은 이어 “국립대병원이 인력 증원을 요청해도 교육부가 특별한 기준이나 일관성 없이 인원 조정을 하는 탓에 현장의 인력난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이러한 상황이 특정지역에 편중돼 있다”며 “간호사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가 책임있는 자세로 국립대병원 인력증원 심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국립대병원은 교육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으며 전국에 11곳이 있다. 기재부 고시(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인원 증원시 교육부장관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전남조선산업정보망 서비스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전남조선산업정보망’(www.jnship.kr)을 구축, 이달부터 서비스에 들어갔다. 전남조선산업정보망은 각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지원사업 등 전남지역 조선산업 관련 정보를 한 곳에 모아, 편리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메뉴는 조선산업 동향, 전남 조선기업 및 유관기관 현황, 사업공고, 소흥마당, 홍보마당 등으로 구성했고, 메인 화면에 각 유관기관 홈페이지와 연결해 편리하게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2억, 투자시

월 300만원씩 지불, 1분

- 법적보장(소유권/근저당 등)
- 경매 진행 물건
- 전화상담 사절

오전경매 H.010-3605-5000

송정리 부동산 매물

- ▶ KTX 개통 최대 혜택지
- ▶ 투자가치의 3개소
- ▶ 11억, 12억, 19억
- ▶ 각 코너 위치

※ 2018년 초 복합환승센터 착공예정

신안군 염전 매물

- ▶ 대형부지 (만오천평)
- ▶ 태양광 부지로 검토 필요
- ▶ 투자가치

문의 010-5236-7458

태양광 발전소 샵니다! 팝니다!

태양광 100K·200K·300K·500K·1메가

- ▶ 견적 설계 · 시공(지상 임야 노지, 아파트, 주택)
- ▶ 태양광 부지 매입합니다.

태양광 발전소 관리 전문

- ▶ 각도 조절, 잡초 제거(풀약, 애초기)
- ▶ 모듈 청소(발전량 상승) 관리해드립니다.

태양광 발전 전문기업

※ 영업사원 모집

(주)동현태양광ENG

☎ 063-225-1116
상당 010-8813-4770

www.kodit.co.kr

“신용보증기금 덕분에 지금은, 마음놓고 거래합니다.”

기대 응당 대우속속

국가가 보장하는 중소기업 안전망 매출채권보험

매출채권보험의 4대 효과

판매위험 보장 | 대우금리우대 | 매출증대 | 거래처 1년간 모니터링

다사량보험 | 보험계약자가 거래하고 있는 다수의 거래처를 대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
현사량보험 | 거래가 많을 때는 특정기업 1곳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보험
건원보험 | 계약자 신용등급, 업력, 매출액 규모에 제한없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

광주신용보증센터 062-607-9261,9262

중소벤처기업부 | 신용보증기금

2018학년도 전기 산업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21세기 글로벌 엔지니어 리더에 도전하십시오!!
직장인을 위한 야간 강의 실시 [주1~2회, PM 7~11시]

- 지역의 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지식 창조 대학원
 - 정규 공학석사 학위과정 졸업 후 박사과정 진학 가능
 - 학점인수(30학점)로 석사학위 취득 가능(논문문제)
 - 본인 업무와 연관된 주제의 학위논문 작성으로 실용적 연구능력 함양과 특허출원 가능
 - 졸업 후 관련분야 연구 및 과제 수행으로 신학관 연구네트워크 구축
-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알찬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창의적 공학실제, 공학프로그래밍 등 혁신적인 교육과정 시스템운영
 - 첨단기자재를 활용한 효과적인 학습자 중심의 교육 실시

전형일정

구분	일정
입학원서 작성	2017. 11. 6.(월) ~ 2017. 11. 20.(월) 09:00~18:00
입학원서 접수 (제출서류 포함)	우편 2017. 11. 6.(월) ~ 2017. 11. 20.(월) 09:00~18:00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창구 2017. 11. 6.(월) ~ 2017. 11. 20.(월) 09:00~18:00
전형일	2017. 12. 5.(화) 10:00~
합격자발표	2017. 12. 21.(목) 11:00(산업대학원 홈페이지)

- 모집학과
건축공학/기계공학/산업공학/재료공학/전기전자컴퓨터공학/토목공학/화학공학/환경에너지공학/환경경영학/식품·의식산업학/지역환경자원공학/전자컴퓨터공학(계량학과)
- 문의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전화] 062-530-1607 [팩스] 062-530-1942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gsit.jnu.ac.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GRADUATE SCHOOL OF INDUSTRY TECHNOLOGY DONGNAM NATIONAL UNIVERSITY